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광주, 미래 15년을 생각하자



노경수

“ 호시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도시계획을 전공한다고 소개하면 대부분 상대방은 “돈 많이 버시겠네요” 아니면 “좋은 땅 좀 소개시켜 주세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도시계획을 잘 알면 정보를 얻어서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그것도 특수한 경우나 있을 법한 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도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혜나 대규모 수익을 낚는 ‘비밀’이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감대 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되는 ‘2025 광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광주시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 계획은 앞으로 15년 동안 광주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설치·건축물 및 주택 공급 등의 기초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담고 있는 내용이 전문적이며 딱딱해서 일반시민이 쉽게 읽어내기가 힘들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과거 오랫동안 일부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산권에서 동태의 일상적인 삶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이 계획에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따라서 향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15년 뒤 광주 미래가 어

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지표·도시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3개 분야만 이해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파악할 셈이다. 2025년 계획인구를 180만 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0 계획에 비해 약 10만 명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인구감소시대를 앞두고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획에 있는 개별 사업별로 시장수요 및 사업비 조달에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했다. 광주도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신개발축은 국도 13호선을 따라 첨단·하남·진곡산업단지와 연결되는 ‘R&D특구 개발축’, 상무·서창·대촌·나주혁신도시로 이어지는 ‘혁신도시축’, 송정·빛그린산단·평동의 ‘미래개발축’ 등 방향축과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축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축으로는 광주의 동서를 멀리 감싸고 있는 녹지축과 도시 내 야산 등의 연계 녹지, 영산강 수변축의 ‘시민의 숲’이 강조되고 있다. 중심지에는 시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상업용지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 상업지역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규로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켜 기존 도심과 상무도심 등 2개 도심, 송정과 첨단 등 2개 부도심, 9개의 지역중심, 2개의 특화핵을 계획했다. 지역중심에서 용복과 소태, 특화핵에서

서창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계획에서 어려웠던 점은 기존도심과 상무도심이 상상하는 기능 분담이 가능할 것인가와 과연 2014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송정지역이 부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의 면적은 최대한 억제하고 위치 배분은 개발이 추진되는 축과 맞춰 재배치했다.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한 도시 확장을 멈추고 도시 내부를 우선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비롯한 적극적인 산업진흥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충분히 확보해 줬다. 도시계획은 크게 밀그림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그것을 실현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통상 주민들은 본인의 토지이용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큰 틀로 결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한 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많은 시민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다문화가정 국가·사회적 배려 절실하다

국제결혼 급증 추세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광주에 2752명, 전남에 7775명 등 모두 1만2527명의 2세대들이 성장하면서 미래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5.1%인 3699명이 초·중·고교에 진학 중이며 나머지 6828명은 미취학 아동들이다. 전남에는 10명 중 8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해 폐교 일로에 있는 각급 학교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한국인 학생을 초월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미래를 일구고자 하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그 특수성에 바탕을 둔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마땅하다. 또 그들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정당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레아 마이너리티 ‘코리안’이 아니라 당당한 주류로서의 ‘코리안’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국가·사회적 배려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국가·사회적 배려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국가·사회적 배려 절실하다

광주시 서민지원·일자리 창출 말로만 하나

광주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에 따르면 서민경제와 직결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에서 광주시가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창출도 목표만 거창할 뿐 실제 드러난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동안 광주시가 내세운 ‘서민경제 우선’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그친 셈이다. 올해 광주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및 경영력 강화 자금은 총 2250억 원이다. 이는 6대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금액이다. 또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도 14억 원으로 시세(市勢)가 비슷한 대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선정한 ‘성공점포 100개’에 광주는 단 한 곳만 선정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난 민선 4기 4년 동안 일자리 12만6000개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광주의 실업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000명이 늘어 2만6000명에 달한다. 무려 12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화려하고 거창한 구호나 숫자 놀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역기업과 상점의 매출이 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서민 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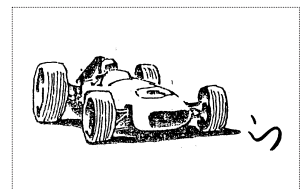
광주시는 서민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동차 경주의 역사는 자동차 탄생만큼이나 오래됐다. 1886년 독일인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인 3륜차를 개발한지 20년만인 1906년 프랑스 르망 근처에서 최초의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다. ‘프랑스 오토모빌클럽’이 주최한 프랑스 그랑프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의 기원으로 꼽힌다.

F1이 시작된지 60년 만에 영입 서킷(경주장)이 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도 드디어 공식적인 F1 개최국이 된 것이다. 국내 최초의 F1 개최지가 전남이 아니라 강원도 평창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F1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950년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영국 그랑프리다. 3년 전인 1947년 세계자동차연맹(FIA)이 발족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던 수많은 그랑프리들이 하나로 묶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F1을 규정짓는 ‘포뮬러(Formula)’와 최고라는 의미의 ‘1’이 결합된 말로 일정한 틀을 갖춘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를 말한다.

코리아 그랑프리



이후 그랑프리 열기는 이태리·벨기에·모나코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곳곳에서 독자적인 그랑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페라리를 만든 ‘엔조 페라리’도 1920년대 ‘레이스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드라이버였다. F1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950년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영국 그랑프리다. 3년 전인 1947년 세계자동차연맹(FIA)이 발족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던 수많은 그랑프리들이 하나로 묶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F1을 규정짓는 ‘포뮬러(Formula)’와 최고라는 의미의 ‘1’이 결합된 말로 일정한 틀을 갖춘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를 말한다.

이후 그랑프리 열기는 이태리·벨기에·모나코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곳곳에서 독자적인 그랑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페라리를 만든 ‘엔조 페라리’도 1920년대 ‘레이스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드라이버였다. F1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950년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영국 그랑프리다. 3년 전인 1947년 세계자동차연맹(FIA)이 발족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던 수많은 그랑프리들이 하나로 묶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F1을 규정짓는 ‘포뮬러(Formula)’와 최고라는 의미의 ‘1’이 결합된 말로 일정한 틀을 갖춘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를 말한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중고칼럼



시봉

소설가이면서 작가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 유명했던 선우휘(1922-1986년) 선생의 학창시절 이야기다.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국가 전반에 걸친 가난 때문에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그의 한 친구는 도시락을 매번 싸 들고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친구의 도시락에는 긴 머리카락이 한두 개씩 꼭 들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머리카락을 살펴서 잡아 빼어 휴지통에 버

잘못 보시는 분이 손을 더듬으며 싸 준 도시락인데 그 속에 머리카락이 아니라 돌이 들어 있는 줄 여쭈 살 수 있겠는가. 그는 그동안 친구 어머니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준 어머니의 정성과 또 친구의 의젓한 태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자란 생각에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들 모자간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꼈다. 그 후부터 선우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내면에 깃들여 있는 진실한

내면 속의 진실

리고는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밥도 사람이 하는지라 머리카락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경우는 그 빈도가 너무 심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선우휘도 그로 인하여 점차 그 친구와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 친구 어머니의 무성의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어서 차마 그와 같은 자기 마음을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놀러 가자고 청했다. 선우휘는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거절하기 어려워 그 친구의 집으로 함께 갔다. 집에 도착한 친구는 집에 들어서자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음까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주변을 살펴 볼 때 저들과 같은 일들은 흔히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에 특별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우리들의 경박한 행동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눈을 밝혀내야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삶의 의미를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들이 종교의 문을 두드릴 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에 눈을 밝혀내야만 한다.

“어머니 오늘은 제 친구 선우휘와 함께 왔어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오, 네가 항상 말하던 친구 휘가 왔단 말이냐. 그래 이리 가까이 오나라 어디 얼굴 좀 만져보자.” 선우휘가 친구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내 곁으로 다가오면서 앞을 더듬고 계셨다. 늙으신 몸에 시력마저 떨어지셨는데 그래도 한결을 한결을 조심스럽게 옮기시며 나한테 다가오고 계신 것이다. 친구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본 선우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경박한 생각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몹시 후회했다. 양도

내면의 생활을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쇠를 담금질하는 경우와 그 과정이 매우 흡사하다. 내적 인간도 되풀이해서 이따금 불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망치로 급히 두들겨서 단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점차적으로 잃었던 본래 자기 모습을 찾게 된다. 자기의 허물을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의 허물은 바늘구멍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의 인심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모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은 우리 인생이 끝까지 끌어안고 해결해야 할 여전한 숙명 같은 것이다. <장성 백양사 주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기고



차재준

광주시는 그동안 식품위생분야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 그 이유는 청결한 음식제공으로 식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향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렇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는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광주 공동체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비엔날레를 비롯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치러야 할 국제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구한 세월을 요한다. ‘푸드웨이’이나 ‘중가집’이 브랜드화되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세계인의 입맛을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적인 명품은 세계인이 동경하고 가지고 싶어한다. 셋째, 이러한 명품들로 특색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광주는 각 자

국제화시대 광주 대표 음식은 뭘까

대회가 산적해 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FISU)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종목별 대회까지 광주가 유치하게 될 경우 치러야 할 국제대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치구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범거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양심을 깨우는 ‘뭉개’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국제 행사에 필자국가 김치, 그리고 쌀밥으로 승부 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 동지를 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음식이 국제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국민이 됐건 외국인도 모두가 함께 즐기게 되었을 때라야 진정한 국제화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창조도시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성 있고 다양한 음식과 그것과 어울리는 문화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또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찜기는 조그만 이익보다 미향 광주에 더 많은 내외국인이 찾으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의 해안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 식품안전과장>

우리는 ‘전주하면 ‘비빔밥’을 떠올린다. 비빔밥 하나로 성공한 사례다. 우리 광주가 고민해야 할 것은 첫째 전주비빔밥과 같은 상징적 명품 음식을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루

뽕기 오락기 속 술·담배,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얼마 전 늦은 밤에 비디오 가게 문 옆에 설치돼 있는 인형 뽕기 오락기에서 중학생 쯤 돼 보이는 학생 둘이 뽕기를 열심히 뽕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 때 법적 규제를 하여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뽕기 오락 기계에는 청소년에게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오락기는 동전을 넣고 인형이나 전통 자동차, 담배, 양주, 게임CD등을 로봇 팔과 뽕는 집게손가락 오락기였다. 호기심에 가던길을 멈추고 이 학생들이 뽕 저렇게 열심히 뽕나 하고 행동만 지켜봐도 그런데 학생들은 한참 동안 양주를 뽕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몇 번을 양주 뽕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담배에 집게손가락을 갖다댔다.

성인에게는 심심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는 호기심과 사행심을 유발하여 일탈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 시민 모두가 청소년들이 나쁜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양심껏 영업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